

# 지난해 양파값 대폭락 파동 알고보니 수급조절 실패 탓

### 농산물 유통사, 수입산 대량 방출 농민들 막대한 손실

농산물유통공사의 지난해 농산물 가격안정정책 실패로 양파 가격의 폭락을 초래, 산지유통업체와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양파 재배량이 10% 이상 늘어나 출하가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양파가 출하되지 않은 단경기 1~2월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다는 이유로 수입양파를 당시 시장

가격보다 42% 싼 kg당 509원에 1만1천300t을 방출했다"며 "이로 인해 수입양파 방출이 끝날 즈음인 3월10일께 시장가격이 전년 및 평년 가격대비 35% 이상 하락, 단경기 출하를 위해 양파를 비축 중이던 국내 산지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유통공사는 30억원의 유통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특히 이 여파로 본격적인 수확철인 4~6월 사이에 산지양파값이 지속적으로 생산비 수준에

도 못 미치는 kg당 300원대에 머무르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했다"며 "산지유통업체로 가장 많은 양파를 취급하고 있는 전남 서남부체소농협은 당시 양파값 폭락으로 7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양파값 폭락에 상심한 무안군 청계면의 한 농민이 자살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의 중대한 실패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산물유통공사측의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무안향토관광공사 1억7천800만원의 영업적자를 보고 안도수산물유통과 전남 무역이 청산되는 한편 전남진장유유통공사가 해산 승인되는 등 지자체 운영 유통회사가 경영실적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1시간 1유통회사 정책이 시작도 전에 좌초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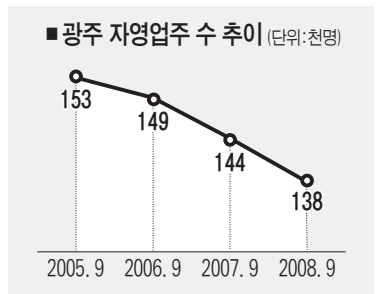
/최경희기자 jkpark@kwangju.co.kr



쇼핑백 뒀은 '쇼퍼백' 인기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여성 5층 시스리매장에서 '백'의 일종으로 큰 쇼퍼백을 뒀은 쇼퍼백을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는 6만9천~19만8천원.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 자영업자 휴·폐업 속출

### 불황 여파 1년새 6,000명 줄어



광주시 광산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46)는 이달 말 문을 닫기로 했다. 불황으로 인해 올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2년 전 개업 때만 해도 제법 수입이 많았는데 내 달 전부터는 매출이자나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종업원도 없이 아내와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 급리까지 치솟으면서 스스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빈곤층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의 자영업자는 13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14만4천명)에 비해 4.1%(6천명) 감소한 것으로, 3년새 9.8%(1만5천명)나 줄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지역 자영업자 10명중 1명은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전남도 지난해 현재 자영업자가 34만6천명으로, 3년 전인 2005년 9월(37만명)보다 6.5%(2만4천명)나 줄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창업 규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광주·전남에서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창업은 448개로, 전체 신규창업(825개) 가운데 54.3%에 달한다.

이는 고용정책 등의 여파로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의 휴·폐업과 창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광주·전남은 2·4분기에만 73개의 음식점(분식집 등 제외)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창업이 잇따랐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3·4분기 신설법인 수가 700개에 그쳐 2·4분기(825개)에 비해 15.2%(125개)나 급감하는 등 창업활동이 공백 일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 등 국내 자영업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370만원으로, 임금근로자(2천569만원)의 54% 수준"이라며 "을들어서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건빵 첨가물에도 '멜라민'

### 중국산 팽창제 603ppm 검출 식약청, 19.5t 폐기-0.4t 유통

건빵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첨가제에서 603ppm이나 되는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중국산 팽창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팽창제를 검사한 결과 무려 60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건빵 첨가제는 국내에 20t 가량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9.5t이 폐기되거나 압류됐으며 제품에 0.4t 가량이 사용됐다.

문제의 팽창제는 건빵 업계 1위 업체인 주식회사 영양에 공급됐으며 이

팽창제로 만들어진 건빵은 8종 약 40t에 이르고 식약청은 전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팽창제로 만들어진 건빵 제품은 추억의 건빵, 보리건빵, 알뜰상품보리건빵, 흠플러스 추억의 건빵, 와이즐레보리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발아 현미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오곡건빵,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검은깨건빵(유통기한 2009.10.5~2009. 10.13일자까지 전량) 등이다.

그러나 이 팽창제로 만들어진 건빵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유 가공품이 아닌 제과용 팽창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혜수

# 광주·전남 기업 자금난 '허덕'

### 9월 어음 부도율 소폭 상승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은 0.38%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0.32%)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0.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어음부도율이

0.50%로 전달(0.36%)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남은 0.21%로 전달(0.27%)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지난해 말 예금부족에 의한 신규 부도금액이 4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기존 부도업체의 부도금액도 70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노스페이스 기능성 언더웨어 출시

아웃도어 전문브랜드인 노스페이스는 겨울철을 앞두고 쾌적함과 보온성을 강화한 기능성 언더웨어를 출시했다.

이 속옷은 맥시프레쉬 소재를 사용해 땀은 물론, 신체 분비물로 인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맥시프레쉬 소재는 세균 및 박테리아로 인한 냄새를 없애는 소취기능이 탁월하다.

또 이 옷은 관전자 함유돼 추운 날씨에서도 높은 보온성을 발휘



하는 등 쾌적한 아웃도어 활동에 도움을 준다. 관전자 함유 언더웨어는 일본 골드원사에 의해 독점 개발됐으며, 체온 밸런스 및 컨디션 조절에 효과가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최경희기자 choice@

## 롯데백화점 아울렛 1호 광주월드킵점 24일 오픈

롯데백화점(대표이사 이철우)은 오는 2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킵 경기장에 아울렛 1호점인 광주월드킵점(점장 최경)을 오픈한다.

기존 월드킵점에 새 단장한 광주월드킵점은 연면적 6만3천800㎡(1만9천300평), 영업면적 1만7천500㎡(5천300평)이며, 2층으로 구성돼 있다. 오픈 후 1년간 매출목표는 1천억원이다.

광주월드킵점은 '최고의 브랜드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안하는 패션 아울렛을 지향한다. 메트로 시티·미샤·다스·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180여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빈폴 메가샵·남성 4대(제일모직·LG패션·코오롱·미도) 종합관, 에스카이어 종합관 등 여러 브랜드 상품을 한 곳에서 윈스톱 쇼핑이 가능한 토탑숍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운영을 통해 얻은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 노하우를 아울렛에 적용해 기존 아울렛점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고객상담실, 카드센터, 어린이 놀이방, 유아휴게실 등 다양한 고객편의시설을 유치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광주월드킵점 출점을 시작으로 김해 (2008년 11월 예정), 과주(2009년 예정), 대구(2011년 예정)에 차례로 아울렛을 출점해 유통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활방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저임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차액으로 최고의 유망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법 25조 3항에 의해 고용사업에 농림부 자금 지원
- ※ 시험 : 11월 11일 23일 / 24일 25일 27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부담 부담지 수강료의 80% 환급 4명중 1명은 초기차액 지원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5-2468

## 저탄소순간전기보일러 온수기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모델	연료	보일러용량	온수용량
ET100-130W	130W	100L	130L
ET100-150W	150W	100L	150L
ET100-170W	170W	100L	170L
ET100-190W	190W	100L	190L
ET100-210W	210W	100L	210L
ET100-230W	230W	100L	230L
ET100-250W	250W	100L	250L
ET100-270W	270W	100L	270L
ET100-290W	290W	100L	290L
ET100-310W	310W	100L	310L

무통상민선 ☎080-909-0088  
구분번호 ☎010-9469-9373